

올해 계약업무 운영 개선방안 수립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 4개 분야 15개 업무로 구성

학교가 계약업무 추진 시 겪는 어려움 해결 위한 '계약 EASY' 제도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계약업무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계약담당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계약업무 지원 확대 △업체-발주기관 간 신뢰도 제고 △소통·협력·홍보 등 총 4개 분야 15개 업무

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계약교육 확대 및 계약업무 편만 제작 등으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잇는 '이음교육터'를 도입해 동아리, 분임토의, 컨설팅,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계약 EASY'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학교가 계약업무 추진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 학교일할 적격심사 지원, 저경력자를 위한 멘토링제,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운영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어, 계약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서식 제공, 대금 지급 안내문자, 청

렴서약서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업체와 발주기관 간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 밖에도 계약 만족도 조사, 청렴계약 소식지 '청렴계약통'을 발간해 지역과의 협력, 소통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정미숙이나 업무역량 부족으로 전북교육의 이미지와 위상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계약업무 운영 개선안을 모든 직원이 꼼꼼히 숙지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국내외 초등돌봄 사례 늘봄학교 시사점 모색

제3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15일 본청 1층 기획운영실에서 제3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일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오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발표와 대화의 장이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2편의 교육정책연구를 발표했다.

먼저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조성 방안'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방향설계의 필요성을 토대로 유아의 숲·생태놀이 체험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했다.

이어 '국내외 초등돌봄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기반 늘봄학교 시사점 모색'에서는 소규모학교 소인수 돌봄 수요 공백 해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다뤘다.

한편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통해 분야별 교육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결과 도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선정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호남·제주권에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은 기업의 중요한 업무가 화재 및 지진 등 불의의 사태로 중단됐을 경우 복구 목표시간 내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 실태에서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총체적인 경영활동이다.

특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기업재난관리자는 기업 재해경감 활동 계획 수립을 대행하고,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는 8과목(36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실무분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실무-대행-인증분야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윤태 평생교육원장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화재나 재해·재난으로 기업 고유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다년간의 재난 관련 학과 운영 노하우와 함께 전문적인 강의시스템을 비롯해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기반을 다져온 우리 교육원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기업재난관리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방방재학과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학과, 재난안전공학과 등을 중심으로 학사와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5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청조나라 회의실에서 학생의회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학생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2기 전북학생의회 힘찬 첫걸음 알렸다

전북자치도교육청서 개원식... 학생의장에 원광고 오현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5일 청조나라 회의실에서 학생의회 개원식을 통해 제2기 전북학생의회의 힘찬 첫걸음을 알렸다.

2024년 제2기 전북학생의회는 지난 1월 총 50명을 구성하였고, 2월 예비학생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기초소양과 자치,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2박 3일 간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개원식은 △1부 학생의장단 선거 △2부 개원식 △3부 전북학생의원과 교육감과의 차담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1부 학생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

으로는 원광고 오현서 학생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남성여고 오인영, 동암고 기도훈 학생의원이 선출되었다.

2부 개원식은 오현서 학생의장의 개원사를 시작으로 서거석 교육감, 학생의원, 학생위원의 축사, 학생의원 당선증 및 배지 수여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축사에서 "자랑스러운 제2기 전북학생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학생의원으로서 도내 학생들을 위해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학생의원들의 발전을 소

망한다"고 말했다.

3부 전북학생의원과 교육감과의 차담회에서는 △제2기 학생의회에 기대하는 점△교사들의 인권 침해 예방 정책과 해결 방안 △문제해결 향상 방안 등 정책 질의부터 △교육감의 좌우명 △인생 책과 이유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등 사적인 질의까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오현서 학생의장은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2기 학생의회가 1기 학생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작하는 변신의 시작점"이라면서 "학생의회를 이끄는 의장으로서 20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정기 총회.

호남권 기독교 거점대학 역할 수행

전주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정기 총회서 협약 체결

기독교 사학 공공성 증진 연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서울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사학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정기 총회에 참석, 호남권의 기독교 거점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총회에는 기독교 초·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및 대학교의 학교 대표단을 비롯해 한국교회와 국회 대표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독교 거점대학 관련 주요 협약 내용에는 기독교 사학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권역별 기독교 사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학교가 호남권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심으로 헌신하고 섬길 기회가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신입교원 대상

학생상담·취업지도 교육

전주기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5일 신입교원 대상으로 학생상담 및 취업지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분교 신입교수 11명이 참석,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내 및 학과별 담당건설턴트 소개 △2024년도 청년고용정책 안내 △교내상담시스템(역량개발시스템)시연회 △효율적인 진로 및 취업지도 방안 모색 △취업을 향상 방안 모색 등으로 진행됐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진로·취업 지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 교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사업 선정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가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자력·방사선 안전 규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양자시스템공학과는 정부 지원을 통해 향후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분야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또 현장 기반의 사전실습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도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표준화연구센터

와 협력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서희 교수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지인 서비스 등 교내의 다양한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전문화의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한 양자시스템공학과는 우리나라 전력의 핵심 기반인 원자력 시스템을 비롯한 플라스마 및 방사선 공학, 미래 에너지의 주역이 될 핵융합 시스템, 물질의 근본을 밝히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자 가속기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로 학과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장은성 기자

교육환경 둘러싼 낡은 규정 손질

전북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관리 계획 수립

법령·조례 등 근거 있을 시 위원회 신설 등 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회의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환경을 둘러싼 낡은 규정을 손질하기로 한 것.

조정·통합·자문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성이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 신

설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위촉 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위원회 예산의 적정 계상 및 집행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비법정 위원회 폐지 등이 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분기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점검, 각종 위원회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위원회 관리 TF 운영을 통한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게 위원회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그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4 구강건강 진료 지원 받으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달부터 도내 290곳 치과서 진료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진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지원 사업은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초4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치아우식 초기치료(레진,GI) 등 1인당 4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대상 학생은 모바일 앱(텐타이)을 다운받아 가입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협력 치과에 전화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치과는 도내 290곳으로 모바일 앱과 학교 홈페이지(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관리와 개별 맞춤형 진료를 지원받아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지원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4~15일 이틀간 비전관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제4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속 전문대학 발전 방안 논의

전주비전대, 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회장단 회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4~15일 이틀간 비전관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제43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회장단 및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장단은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신입생 모집 활성화 방안이나, 입시박람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대학 선택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